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하라” 970만 영호남인 뭉쳤다

지자체·의회·시민단체 공동건의문
이용섭·권영진 시장靑·국토부 전달
국가균형발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문 대통령 공약 철도계획 반영 요청

광주와 대구를 잇는 오작교 역할을 기대했던 ‘달빛(달구벌·빛고을)내륙철도’가 중앙집권식 단순 경제논리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영호남이 다시 한번 뭉쳤다. 광주와 대구가 단절된 영호남 상생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코로나19 대확산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전국에 울림을 줬던 병상나눔 연대 이후 1년여 만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23일 청와대와 정부에 ‘달빛 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청와대 유명민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차례로 만나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철도가 지나가는 10개 지방자치단체장, 광주·대구 시의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장, 광주·대구·전남·전북·경남·경북 국회의원 27명, 시민단체 대표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국가 기간 교통망이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남북축 위주로 구축돼 동서 간 교류와 균형발전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동서 교통 인프라 부족은 지역 간 경제 불균형, 수도권 쏠림 현상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결국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빛 내륙철도는 영호남 인구 543만명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고 기존 교통체계와 연계해 남부권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철도 건설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동서교류 촉진을 위해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또 청와대 관계자와 국토부 제2차관 등을 잇따라 만나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970만 영호남 사·도민의 염원이 담긴 문재인 정부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1시간대 생활권 형성과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필수사업”이라고 강조한 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단순히 경제성이나 예산 규모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중앙집권식 사고의 전환을 촉구했다.

달빛 내륙철도는 4조8500억원을 들여 광주와 대구 사이 203.7km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된 뒤 ‘건설 추진협의회’, ‘경유 지자체협의회’ 등을 통해 영·호남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2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 초안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광주~대구간 철도가 건설되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남북축 중심 철도망에서 벗어나고, 영호남 동서축 철도건설을 통해 호남선, 전라선,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등 기존 철도망과 순환 연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남부내륙선, 경전선과도 연계되는 국가철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양 시도의 주장이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와 대구시는 물론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영호남 지자체와 연대해 달빛 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이번주 열려 후보 3~4명 윤곽...이르면 5월말 취임

이성운 지검장 포함 여부 촉각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압축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번 주 열리면서 한동안 지체됐던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압축한다. 추천위가 국민 천거로 추천받아 법무부의 검증 절차를 거친 후보 중 3명 이상을 박법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 장관은 이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정한다.

천거된 후보자들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지만 압축된 후보 명단은 공개가 원칙이다. 역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과정을 살펴보면 추천위가 후보자 3~4명으로 압축하면, 법무부 장관은 1~4일 안에 후보자를 제정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후보자 지명은 추천위가 끝나고 이틀 시일 내 이뤄질 것인 전망이다. 하지만 후보자 지명이 바로 이뤄져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이르면 5월 말이나 6월 초 새 총장이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는 추천위의 압축 후보군에 이성운 지검장이 포함될지, 또 경우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을 제정할지 여부다. 이 지검

장은 호남 출신으로 문 대통령과는 대학 동문인데다 현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으면서 정권을 겨냥한 각종 수사를 문건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친정부 인사로 알려졌고, 유력한 총장 후보로 꼽혀왔다.

하지만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될 상황에까지 처하면서 이 지검장을 총장 후보로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심의를 맡기기 위해 소집 결정을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시기와 결과도 향후 총장 인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서 밀려날 경우 김오수·이금로(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의 낙점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된다. 이 지검장보다 선배 기수가 총장이 될 경우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될 수도 있다.

아울러 이 지검장과 연수원 동기인 구본선 광주지검장, 한 기수 아래인 조 직무대행도 후보군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돌아온 대선의 계절...대선주자 팬클럽 우후죽순

‘그래도 이재명’ ‘낙연포럼’

‘우정특공대’·‘윤사모’ 등

주자마다 수십여개 활동

‘대선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대권 잠룡들의 전초 부대이자 외곽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지지 모임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강력한 팬덤으로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는 ‘제2의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성공 모델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에선 이재명 경기지사 팬클럽 ‘그래도 이재명’이 지난달 출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희망 22 포럼, 희망 사다리 포럼, 더불어 K 등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일단 이재명 지사에 유리한 기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홍보 지원을 하는가 하면 지역의 현안 해법과 미래 먹거리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

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는 지지 팬클럽과 포럼 등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뒤, 대선에 돌입하면 전국적 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모임은 70여 개에 달한다. 활동 인원만 2만명이라고 한다. 지난 2월 호남권에서 결성된 대표 팬클럽 ‘신복지 2030’을 비롯해 전국 모임인 ‘낙연포럼’, 영남권의 ‘평화포럼’, 충청 기반 ‘아이리브NY’, 온라인 중심의 ‘NY플랫폼’ 등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표가 NY 플랫폼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각종 모임의 SNS 채팅방에도 종종 등장해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지 모임들이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당시 출범, 현재의 활동폭은 예전같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대선 구도에서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팬클럽은 지난 2월 출범한 온라인 서포터즈 ‘우정(우리가 정세균이다) 특공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국민시대’, ‘우정포럼’ 등 지역·직능별 1000여개 지지모임에 5만명 가량

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조만간 ‘우정 봉사단’도 출범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 정 전 총리 지지 조직은 국민시대를 필두로 그 세를 확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 전 총리는 이번 주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을 돌면서 지지세를 결집시킬 예정이다.

아권에선 유력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 모임이 단연 왕성한 활동을 과시하고 있다.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가 대표적이다. 윤 전 총장이 추미에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을 때 화환 보내기를 주도한 이들도. 회비를 내는 회원 수만 5만9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생긴 모임으로 알려졌다.

다른 아권 잠룡들의 팬클럽들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만2000명이 참여하는 페이스북의 ‘홍준표 팬클럽’, 유승민 전 의원의 팬클럽 ‘유심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안국모’(안철수와 함께 하는 국민모임), 원희룡 제주지사의 ‘프렌즈원’도 온라인 기사를 공유하거나 현장을 찾아다니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함께하는 100년 농협

69 창간 69주년 광주일보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국민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NH카드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아니로마트 062)373-3235	아니로마트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